

쌓여가는 택배 상자... 택배 파업 장기화에 유통가 '비상'

택배파업 일주일째 이어가
분류인력 투입 시점 놓고 이견
오픈마켓, 배송지연에 골머리
기약도 대안도 없어 업계 한숨

택배노동조합의 파업 불똥이 유통업
계까지 퍼지는 모습이다.

택배 파업이 일주일째 지속되면서 현
장 인력이 줄어들어 배송 지연이 이어
지자 유통업계는 우체국택배를 통해 물
량을 배송하고 있다. 하지만 우체국택
배는 늘어난 물량을 감당하고 있지 못
하는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파
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뚜렷한 대
안도 없다는 점이다.

택배노조 측은 지난 9일 택배 근로자
의 과로사 방지 등과 관련해 정부 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작년에 택배기사 16
명이 과로로 사망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5명이 사망했다. 13일에도 1명이 쓰러
져서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이번 주부터는 파업
참여자 수와 배송 거부 물량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사측과 노조는 택배 분류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사회적합의 승리, 단협 체결 승리, 전국택배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인력 투입에 대한 시행 시점을 두고 이
견을 보이고 있다.

민중기 롯데택배노조 강동지회장은
“현재 협의를 하는 중인데 거기에서 결
정된 내용을 진행해달라는 것”이라며
“말로만 합의해놓고 진행되는 게 아무
것도 없으니까 파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옥션, G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개별 택
배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G
마켓·옥션·G9 등 이베이코리아가 운영
하는 온라인 쇼핑몰에는 지난 10일 택배
노조 파업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이베이코리아 측은 “이베이코리아
규정에 입점 판매자들이 3일 이내에 고
객에게 배송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은 책임을 묻거나 하는 부분을 없
었다”며 “따로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스
마일배송과 같은 경우도 판매할 때 노
동자 파업 이슈로 인해서 배송이 지연
될 수 있다는 안내를 고객에게 하고 있
다”고 전했다.

반면, 오픈마켓과 달리 쿠팡과 SSG
닷컴 등 자체 물류를 운영하는 업체는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자체 배
송에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있어서 택
배노조 파업 여파를 피해갈 수 있기 때
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가 지난 8
일 2차 사회적합의기구 논의 결렬로 무
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택배 서비
스 차질을 막기 위해 우편집배원 1만
6000여명을 택배 배송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체국택배 위탁 택배기사 약
3800명 중 2700명이 준법투쟁 형식으로
파업에 참여하면서 인력 운용에 어려움
이 생겼다. 이에 우체국택배는 배송 지
연 때 상할 우려가 있는 냉동·냉장 식품
은 배송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우편집배원 노조인 전국공공운수노
조 민주우체국본부는 지난 10일 기자회견
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조의
배송거부에 손쉽게 우체국 집배원을 희
생양으로 활용해 배송거부를 무력화하
고 집배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며 택배노조 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거
부된 택배 물량을 집배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시간 줄
이기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근로시간 줄이기 방안도 노조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택배 산업은 배
송 건수로 수입이 결정되는 구조인데
근로시간을 줄이면 수익감소로 이어지
기 때문이다. 건당 수수료를 인상해야
현재의 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정부
의 합의안에는 이러한 부분이 빠져있다
는 게 택배노조 측의 지적이다. 15일 노
사정 3차 간 사회적합의기구회의 결과
가 파업 장기화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
망이다. 만약 15일 회의에서도 절충안
을 찾지 못한다면 유통업계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선 기자·강준혁 수습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공모주 중복청약 막차 기업 어디?... 관심 ↑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불가
에스디바이오센서·크라프톤
금감원 내주 최종승인시 가능



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공모
주 중복청약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20
일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
융감독원이 최종 승인할 경우 중복청약
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중복청약
막차를 탈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
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법 시
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복청약을 금지하고, 여러 건을
청약했을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공모주를 배정한다고 밝
혔다.

현재 중복청약 막차를 탈 것으로 전
망되는 기업은 에스디바이오센서(SD
바이오센서)와 크라프톤이다. 2곳 모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당초 거론되
던 카카오펍크와 카카오펴이의 경우 예
비심사 승인조차 나지 않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카카오펍크와 카카오펴이는 지난 4

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를 제출했다. 이달 말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공
모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 전망된다.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인 SD바이오
센서의 경우 당초 이번주 내에 일반청
약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금감원의 증
권신고서 정정 요청에 공모 일정을 미
뤘다. 지난 2010년 설립된 SD바이오센
서는 체외진단 분야 전문 기업으로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제품을 10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
다. SD바이오센서는 공모가 산정을 위
한 비교기업 선정에서 추가수익비율(P
ER)이 높은 글로벌 제약사를 의도적으
로 선정한 것 아니냐며 기업가치 고평
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비교기업에 체외진단용 의
료기기 사업의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

인 국내 기업을 추가하며, 희망밴드 가
격을 기존 6만6000원~8만5000원을 4만
5000원~5만2000원으로 30% 이상 낮췄
다. 청약이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7월 5~6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거
쳐 공모가를 확정된 후 7월 8~9일 일반
청약을 실시한다.

일반청약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
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총 4곳을 통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또다시
정정 요구를 받지 않는다면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게임 배틀그라운드 제작사인 크래
프톤의 경우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의 상
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따라서 이번주
안으로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으로부터
통과될 경우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
증권 등을 통해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크라프톤은 5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외에서 발행된 주식
이 4327만4070주임을 감안하면 크래
프톤의 추정 시가총액은 25조원을 넘어섰
다.

/박미경 기자 miyoung96@

쌍용차, 친환경차 생산 등 체질개선 안간힘

첫 전기차 본격 양산 돌입
친환경 라인업 다양화로
미래車 경쟁력 확보 나서
産銀 금융 지원은 미지수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체질개선에 속도를 높인다.

쌍용차 노조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
측의 지구 계획을 수용하면서 협력을
다진한데 이어 미래 자동차 시장 경쟁
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차 생산에 나선
다.

15일 쌍용차에 따르면 프로젝트명
‘E100’으로 개발해 온 첫 전기차 신차
명을 ‘코란도 이모션’으로 확정하고 14
일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

코란도 이모션(Korando e-Motion)
은 코란도 브랜드 가치 계승은 물론
전기차(EV)와 역동성(Motion)의 조합
으로 고객의 감성(Emotion)에 충실하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사내
공모를 통해 274점을 응모 받아 전문가
의견수렴 후 10개를 최종 선정해 해외
시장에서 동일한 모델명을 사용하기 위
해 글로벌 상표소사를 거쳐 최종 확정
했다.

코란도 이모션은 패밀리카로 손색 없
는 거주공간과 활용성을 갖춘 국내 첫
준중형 SUV 전기차로 전제적인 디자
인은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유선형 라인
을 가미, 어떤 드라이빙에 최적화된 스타
일링을 추구했다.

코란도 이모션은 반도체 수급 문제
및 협력업체 부품공급 상황 등 제한된
생산량으로 인해 우선 10월 유럽 시장
부터 출시를 위해 8월 선적할 계획이
며, 국내는 반도체 등 부품수급 상황을
감안해 출시일정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
다.

쌍용차는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도 진

행하고 있다. 2022년 출시를 목표로 중
형 SUV ‘J100’도 개발중이다. J100(프
로젝트명) 디자인은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헤리티지(Heritage)인 ‘강
인하고 안전한 SUV’라는 본질을 바탕
으로 새롭고 모던한 정통 SUV의 스타
일링을 구현했다.

쌍용차는 소형 SUV 티볼리 브랜
드를 비롯해 준중형 SUV 코란도, 중형 S
UV J100, 대형 SUV 렉스턴 브랜드가
지 SUV 풀라인업을 구축해 SUV 전문
기업으로 위상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코
란도 이모션을 필두로 미래를 책임질
중형 SUV 전기차, 전기차 픽업 모델 등
친환경차 라인업도 다양화할 계획이
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성공적인
M&A 추진으로 기업 회생의 발판을 마
련하고 급변하고 있는 업계 트렌드 대
응을 위한 신차 출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는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신 성장동력을 발굴
하여 미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쌍용차의 이같은 노력에도 산
업은행과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인수 의향자들의 사업
계획이 나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회장은 쌍용
차의 지구안에 대해 “핵심 요소가 충족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 회장은 ‘투자자 관점’에서 봐
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구안을 내 놓
은 쌍용차 노사 측의) 노력은 감사하지
만 그게 충분한지도 우리가 꼼꼼히 생
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DL이앤씨, 시장 복귀 두 달 만에 1兆 수주

>> 1면 ‘수도권 공략’서 계속

DL이앤씨는 지난 5월 산본 우ruk
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며 리모델
링 시장에 복귀한 이래 이달 5일 수원
영동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에 이어
이번 사업까지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면
서 복귀 후 두 달이 채 안되는 사이 1조

334억원의 리모델링 수주고를 달성했
다.

쌍용건설도 ▲광명시 철산신신
(4600억원) ▲송파구 가락쌍용1차
(8000억원) 등 굵직한 리모델링 사업
을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하면서 수주 신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이달 태광맨션 가
로주택사업(800억원) 등을 수주하면서

1조3400억원을 기록했다. 쌍용건설은
현재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산본 개나
리주공13단지 리모델링 수주를 추진 중
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 등 재
건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축 단
지들이 새 아파트에 살기 위해 비용부
담이 적은 리모델링 사업을 선택하고 있
다”며 “2014년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
정 이후 본격화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